

각 분야별 목표

네번째강 계획

네 번째 강 계획은 북한 땅이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문이 열리게 될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네 개의 강을 따라서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 네 개의 강은 예수원 삼수령에서 나오는 세 강의 줄기와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연결된 백두대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백두대간은 네 번째 강이자 생명의 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북한의 독특한 상황과 한민족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때문에 특별한 연구와 훈련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사역계획은 하사미리 마을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원의 삶과 경험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경험들과 학문적인 연구들을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

북한의 복음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 사이에 놓여있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가설들과 세계관의 차이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학, 사회학, 종교, 문화, 경제, 국가 정치학 등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모든 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언어

한국전쟁 이후부터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많이 의존한 반면 서양과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남한은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결국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양국의 언어와 문화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신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영어가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유입됐지만, 북한의 언어는 기독교 압제아래 심한 영향을 받았고, 또한 자체 이데올로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북한사람들은 어휘 문제가 없어도 남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주체사상이나 민족적인 자립의 이데올로기와 국가적인 일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립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타파되어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는 극히 약화되었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수습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남한은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서 자연 재해나 내부의 부패부정 사건, 국제 경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역사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역사적인 전개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을 왜 하나님께서는 무신론의 공산주의와 북한의 압제 가운데 있도록 허용하셨는지 이해해야 하고,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을 떠나 국·내외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2차 대전 말 왜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서 분단되어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했습니까? 국제적인 지정학과 냉전의 측면에서 이 일을 이해하는 한편, 영적인 역사의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어떻게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일이 가능케 되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북한에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한 연구가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전파를 위한 방법론 및 도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식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곳 예수원에서의 경험, 공동체적인 삶, 중보기도 사역,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 성 베네딕트가 말한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선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원 삶을 통해서 이해되고, 더 중요하게는 삶으로 나타난 경험들이 이러한 종합적인 것-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될 지식, 기술, 방법론-들의 기초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훈련과 준비작업 - 삼수령 연구 & 훈련센터

이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방법론들을 사용하여 -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일은 삼수령센터에서 삶의 경험과 가르침 및 연구를 통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실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삼수령센터는 예수원의 생활과 사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이곳의 땅은 현재 목초지 개발을 위해 정부로부터 임대했는데, 예수원에서 초지 개발을 위한 임야를 수련원 및 연수원 용도로 변경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땅은 지형학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 바다 즉 동해, 남해(태평양), 서해로 흐르는 세 강 (오십천, 낙동강 한강)이 갈라지는 삼수령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안 근처의 태백산맥 준령에 위치하며, 북한으로 북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들 및 지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사람들과 훈련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삼수령센터에서는 공적인 기도 훈련과 함께 개인적인 기도생활도 장려할 것입니다. 장·단기 체류자들은 센터 유지를 위해 함께 일하게 될 것이며, 모두가 매일 육체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삼수령센터에서는 학문적 성격을 띤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전 세계적인 교제와 정보교환 및 대화와 연구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이곳에서는 통찰력과 배운 것들을 나누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훈련과정과 보다 많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강 계획을 위한 본부 역할도 할 것입니다. 현재 삼수령목장의 주택과 다른 부대시설들은 사무실과 훈련장소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